

전남광주 생산·건설 ‘맑음’…소비는 ‘찬바람’

7월 산업활동동향	
자동차·전기·가스·증기업 등 견인	스틱 31.2%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담배 (-19.9%), 화학제품 (-8.0%), 석유정제 (-2.3%) 등은 생산이 감소했다.
건설 26% ↑ …토목 178.6% 급증	권역별로는 광주의 생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광주권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7.9% 증가하며 전체 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출하는 24.0%, 재고는 13.8% 각각 늘었다.
전남광주 대형마트 두자릿 수 급락	전남권역 역시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했다. 출하는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재고는 2.7% 늘었다.
	건설 경기 역시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달 전남광주지역 전체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26.2% 증가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분이 100.0%, 민간부분이 4.7% 각각 늘었다. 공종별로는 건축이 31.3% 감소했지만 토목이 178.6% 급증했다.
	권역별로는 온도 차가 컸다.
	광주권역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9% 감소했다.
	공공부문 수주가 1천394.6% 증가했지만 민간부분이 52.2%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토목 수주가 1천441.9% 증가한 반면 건축은 48.6% 줄었다.
	전남권역은 건설수주액이 전년 동월 대비 83.0% 증가하며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공공부분이 52.7%, 민간부분이 103.6% 각각 증가했으며, 공종별로는 토목이 8.5%, 건축이 14.4% 늘었다.
	반면 소비 지표에는 찬바람이 불었다.
	지난달 전남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했다. 특히 전남권역은 판매액이 14.9% 줄어 소비 위축이 두드러졌다.
	광주권역 역시 대형소매점 판매가 1.7% 감소했다. 다만 업태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백화점 판매액은 5.4% 증가하며 선전했지만 대형마트 판매액은 10.6% 급감했다.

산업기술 R&D 사업화 7천억 금융 지원

보증 100%·최대 100억원 한도	을 받은 기업이다.
산업통상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과제 성과의 기술사업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 7천5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업기술 R&D 전담은행인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총 470억원의 보증 재원을 특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기보)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보증을 제공하는 민관 협력 구조로 운영된다.
산업부는 R&D 성과를 낸 기업들이 후속 실증과 양산, 수출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산업R&D 혁신기업 우대 패키지금융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기보는 향후 3년간 총 4천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화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R&D 과제를 우수 또는 완료 등급으로 수행하고 한국산업 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추천	기업 단위로 신용도를 보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개별 R&D 과제의 사업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자금 용자를 보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정 기업은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0억원, 시설자금을 포함할 경우 최대 10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상의, 법률부터 안전까지 실무강좌 운영

민사소송·인사노무·안전관리 등	서 끝까지 : 민사소송 실무’ 주제로 ▲민사소송의 절차와 흐름 ▲소장의 작성과 접수 등의 내용을 분야별로 세분화해 7시간 동안 강연한다.
회원사 역량강화 교육 3회 진행	15일 개최하는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 관리 실무 2편’ 교육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김관민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2026년 하반기 개정 노동법령 ▲근로계약 및 휴가 제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22일에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이 진행된다.
	해당 교육은 회원기업의 원활한 법정교육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표준안전작업 지도 요령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 4시간과 집체교육 4시간을 포함해 총 8시간으로 진행된다.
	김은희 회원사업본부장은 “법률·노무·안전 보건 등 회원기업이 실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를 두루 아우를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며 “회원기업 임직원들이 각자의 업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상의 홈페이지(www.gjcci.or.kr)를 참고 또는 회원사업본부(062-350-5883)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욱 기자

우체국 금융창구망 공동이용 업무제휴 협약

2026년 8월 28일(금) 장소 : 광화문우체국 중회의실(9층)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광주은행

광주은행은 최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부산은행과 ‘우체국 창구망 공동이용 제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정일선 광주은행장,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김성주 부산은행장.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고객 더 가까운 곳에” 우체국 2천380곳서 금융서비스

우정사업본부·금융결제원 등 MOU 농어촌 주민·고령층 접근성 개선 기대	템 연계·개발을 완료하고, 10월 중 거래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을 점검한 뒤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광주은행 고객은 기존 영업점뿐만 아니라 전국 우체국 창구와 자동화기에서도 입금, 지급, 이체, 조회 등 기본적인 금융 업무를 별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우체국 창구는 전국 2천380여개로, 이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에는 32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광주은행은 기존 영업점과 디지털 채널에 우체국 창구망을 더해 도심과 농어촌을 아우르는 촘촘한 금융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고객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접점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확대된 생활권과 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까지 아우르는 지역 대표은행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여름철 침수대비 행동요령

침착하게 # 안전하게 # 신속하게

보행 시, 침수지역 및 하수도, 맨홀 근처 접근 금지

지하공간 이용 시,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

차량 이용 시, 지하차도 진입 금지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해남매일시장
해남읍5일시장
망골송지장
남창5일시장

좌일5일시장
남리5일시장
우수영5일시장
화원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1. 해남매일시장 : 상설

2. 해남읍5일시장 : 매월 1일, 6일로 끝나는 날

3. 망골송지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4. 남창5일시장 : 매월 2일, 7일로 끝나는 날

5. 좌일5일시장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6. 남리5일시장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7. 우수영5일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8. 화원5일시장 : 매월 5일, 0일로 끝나는 날

맛(맛 미) 해남의 풍부한 농수산물 먹거리, 美(아름다울 미) 아름다운 남쪽 해남, 迷(미혹할 미) 마음이 이끄는 곳, 尾(꼬리 미) 해남의 땅끝의 감성, 테라피 해남

직접 농가에서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과 인근 바다에서 수확한 해산물(낙지, 굴, 숭어, 전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옛 시골장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해남군 광고문의 : 062)650-2099

CMYK